

투데이 칼럼

따뜻한 겨울나기는 난방기구 안전수칙으로부터

따뜻한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던 한여름이 엇그제였는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차디찬 바람을 피해,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해 난방기구가 사랑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역시 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난방기구 화재는 8,617건이며, 그 중 화목보일러가 1,644건으로 전체의 19%, 전기장판·전기담요류는 1,242건으로 14.4%를 차지했다. 또한 난방기구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3명으로, 전기장판·담요·방석류가 26명, 전기히터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통계가 말해주듯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피해가 매우 커 미리 안전수칙을 알고 지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

첫째,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구의 플러그는 뽑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난방기구는 소비전력이 높아 일반 멀티탭으로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연결 또는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전기장판 사용 전 열선이 꼬이거나 단선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플러그에 먼지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대기가 건조한 경우 먼지는 스파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플러그의 먼지를 제거하고,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 보관해 꼬임과 단선을 예방한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시 라텍스 매트리스나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텍스 매트리스는 열축적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매트리스 위에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화목보일러 가까이 불에 타기 쉬운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씨가 비산하면서 주변에 쌓이듯 장작 등에 붙어 화재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

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연통을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해야 한다. 연통에 찌꺼기가 누적되어 과열된 연통의 열이 찌꺼기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초기진화를 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생각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뜻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들을 다 알지만 직접 난방기구를 점검하고, 예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사설

전북 교육계 어른 류재신

전북의 제7·8대 교육감을 역임한 류재신(柳在鎔) 전 교육감이 지난 10월 20일 숙환으로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장지는 장수군 산서면 선영이다.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출신인 류재신(柳在鎔) 전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 7대와 8대 교육감을 지냈다. 교육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민훈장 기린장(1983년)과 국민훈장 모란장(1984년)을 수상했다.

고인은 생전에 전북 교육계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다. 실제로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 봉사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새 의지 참 교육'을 전북 교육 방향으로 정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며 평생을 지역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그는 전북 교육에서 나아가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창안하고 추진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사랑의 장학금'을 창설해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하기도 했다. 전북교원연수원을 설립해 교원 자질 제고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 전 교육감은 전주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의 위상 강화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모교인 전주북중학교 교사로 출발, 전교 교사·교감·교장에 이어 전북도교육감을 역임했다.

평생을 후학 양성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국민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교 사랑과 동참의 명예를 빛낸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전교·북중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동문 '전교를 빛낸 사람들상'을 수상했다.

전주고등학교 24회 출신인 류 전 교육감은 개교 91주년을 맞아 열린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으뜸상인 '지망스런 교인상'을 받은 것이다.

한중 관계의 미래 전망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처음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았다. 그 때까지 두 나라 정상회담은 예기가 없었다.

현지 일정이 하루 남았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을 수행 중인 참모들도 " 지켜봐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했으나 공개적으로 알릴 정도의 진전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협의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정식 회담에 촉각이 곤두섰다. G20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인사 자리도 있을 거고 대통령이 연설도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어떤 식으로든 마주칠 거로 보인다. 사실이였다.

즉석에서 '풀어사이드'라 부르는 약식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제 조율

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중 정상회담이 안 열린지 벌써 3년이 다 돼간다. 이번에도 막판까지 불확실했다. 시 주석은 지난 정부 때도 방한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불발됐다.

최근엔 3연의 문제로 시 주석이 매우 바빴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미·중 사이 '균형 외교'에서 미국 주도 '가치 외교'로, 우리가 무게 중심을 옮긴 게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도 있다.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같은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도전은 미국 이란 최근 주한 중국 대사 말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한중 관계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전투 피해 떠나는 민주콩고 피난 행렬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정부군과 M23 반군 간 전투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이 15일(현지시간) 고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민주콩고는 이웃 나라 르완다가 반군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르완다는 민주콩고가 양국 간 군사 긴장을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맞박고 있다.

트럼프, 차기美 대선 출마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리고 리조트에서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